

도내 정치권, 김관영 무소속 출마 맹공

(전북지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권희)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과 당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고, 진보당 전북도당은 "범죄 방탄용 출마"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 위원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 도민의 가슴에 두 번씩이나 대못을 박는 김관영 예비후보의 배신행위를 도민과 당원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김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강행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

민주당 "도민 신뢰 배신한 정치적 독선" 진보당 도당 "범죄 방탄용 출마 즉각 중단을"

는 사례"라며 "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과 가치, 당원들의 헌신적인 지원 속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아 도지사에 당선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도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며 "정당을 유리할 때만 이용하고 불리한면 버리는 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김 후보의 제명 문제와 관련해 "전 국민이 경악한 금품

살포 영상이 공개됐고 민주당의 민중 일치 제명 결정은 당연한 조치였다"며 "자신의 잘못으로 촉발된 사안을 두고 당을 탓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의 이번 선택은 결국 나 아니면 안 된다 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는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과 공동체의 책임 위에서 작동하는 공적 영역인데도 공당의 질서를 부정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은 독선과 독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위원장은 전북의 미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 9조 투자 프로젝트, 피지컬 AI 중심 전북 대전환 RE100 기반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새만금 사업 추진, 국가예산 확보 등 핵심 과제들은 당·정·청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무소속 도지사의 고립과 단절로는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진보당 전북도당 백승재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를 향해 "범죄 방탄용 출마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 후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당내 갈등이 아니라 김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이라며 "CCIV 등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억울한 피해자인 척하며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가 내세운 '특검 기소 시 은퇴' 입장에 대해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검을 방패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계산된 정치 행위"라며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높은 현금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왜 기소 시 사퇴를 약속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재선거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출마는 결국 도민의 투표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당선 이후 재선거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형세 낭비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는 "전북은 선거범죄의 피난처가 아니며 도민은 자신의 방탄용 투표지가 아니다"라며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김관영 후보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만호 기자

전주, AI 기술주권 거점

민주 정동영 의원, 2026 AI 신뢰성 혁신실증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 통일부장관 겸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2026 인공지능(AI) 신뢰성 혁신실증사업' 공모에 전북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9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9억 5천만원씩 투입되며,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전북형 AI 검·인증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피지컬 AI, ICT 융합, 모바일·기계부품, 에너지, 제조, 농생명·바이오 등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AI 신뢰성 검증과 실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반 신뢰성 검증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규제 대응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AI 신뢰성 실증센터 구축과 지역 확산 전략 수립 등을 맡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는 지역 기업 대상 AI 품질 검증과 신뢰성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은 피지컬 AI 1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라며 "전주와 전북이 대한민국 AI 신뢰성 실증을 선도하는 국가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신뢰성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민주당 백승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지사를 향해 "범죄 방탄용 출마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왕궁 아레나13·혁신금융으로 전북 재설계"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전북 민주당 지난 30년, 정치 실종의 역사" 비판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수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민주당은 전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다"며 전북에서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이어진 민주당 체제 속에서 전북 경제와 정치 모두 실패했다"며 "왕궁 아레나 13 프로젝트와 STO(토론증권) 기반 혁신 금융으로 전북 경제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북은 지금 지방선거 열기와 함께 민주당 경선 과정의 정당성 논란까지 더해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라며 "일부에서는 혼란이라 표현하지만,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이 정도 관심



과 열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선거 국면이 정책 경쟁이 아닌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대리비·식사비 논란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인타깝게도 이번 선거의 관심이 정책 해결보다 각종 논란에서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도민들이 결국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전북 민주당의 지난 30년을 "경제 무능과 정치 실종의 역사"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전북 민주당은 오랜 기간 전북 발전을 약속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해 왔지만 전북 경제는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전북 경제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십 년간의 경제 지표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전북 경제 회생 방안으로 '왕궁 생태 아레나 13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보조금 몇 푼으로 지역 상권은 살아가지 않는다"며 "왕궁 생태 공공형 카지노와 왕궁 생태 환경공원, 아레나 13 구축을 통해 대규모 외부 관광객과 소비 인구를 유입시켜

다"고 밝혔다. 이어 "왕궁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 에너지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광역 서플라이를 구축하겠다"며 "낮에는 왕궁에서 관광과 공연을 즐기고 밤에는 익산·전주·군산 등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는 24시간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블록체인 기반 STO(토론증권)를 활용한 '도민 공유형 경제 시스템'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북민들을 통해 지역상생 SEC를 설립하고 골목상권을 디지털 자문화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성장의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도시를 건물을 짓는 토목사업이 아니라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춘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STO를 새로운 혁신금융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8조를 언급하며 "정당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민심을 담아내는 통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 기반 위에서 전북의 정치를 다시 도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김관영, 선거 첫 공식 행보 '민생'

남원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방문... 전주 남부시장서 애로 청취



6·3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출마 선언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민생 현장을 찾으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남원에서 열린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노인복지 정책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책임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확충과 기초연금·무연금급 확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전북이 만들어졌다"며 "노년층 생활 인프라와 맞춤형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오귀성 상인회장과 상인들을 만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 현상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왔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경협을 바탕으로 서민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민주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후보로 선출받았다"며 "전북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만호 기자

"안심번호·대포폰 의혹, 수사 진행 설명하라"

공정·정의 실현 전북기독연대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전북기독연대(대표 박현수 목사)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장·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안심번호·대포폰·선거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체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현수 목사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박 목사는 "전북의 선거가 과연 공정했는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 절차가 정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지금 전북 곳곳에서는 안심번호, 대포폰, 선거 브로커 의혹까지 제기되며 민주당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특정 후보 개인의 억울함이나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도민들은 과연 경선이 공정했는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누군가 민심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입수수색도 이뤄졌지만 정작 도민들은 수사기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적 편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수사 진행에 대한 공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가 실제 진행 중이라면 도민은 적어도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설명이 있어야 불필요한 억측과 왜곡을 줄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 설명 없이 시간만 흐르면 커지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허이고 길어지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불신"이라며 "도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중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전북기독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경찰청의 안심번호 및 여론조사 관련 수사 진행 경과와 범위에 대한 공적 설명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절차적 진행 상황 공개 △관계기관과 정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는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정한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된다"며 "전북경찰청은 침묵으로 이 사안을 넘기지 말고 도민 앞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적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북 지역 일부 시장·군수 선거 과정에서 대포폰과 안심번호 활용 의혹 등이 제기되며 후보자들이 잇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찰 역시 관련 의혹 전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만호 기자

'효 도시락 부엌' 통한 어르신 식사 지원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어버이날 맞아 공약 발표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조국혁신당)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식사 지원 정책인 '효 도시락 부엌' 공약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7일 기자회견에서 "정성스러운 밥 한 끼로 어르신 돌봄과 공동체 회복을 이루겠다"며 "익산을 효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익산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약 4,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효 부엌에서 조리한 도시락이 가정 배달하거나 권역별 거점 식당

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식재료는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하고 운영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연간 약 80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 지원과 기존 노인복지 사업 통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 후보는 "어르신 건강 증진과 돌봄 부담 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며 "부드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 익산=이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국힘, 계엄 등 인한 민심에 책임 안져"

이수진 도의원, 국힘 탈당...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 선언

"무투표 당선 악순환 고리 끊어낼 것... 시민 앞에서 평가"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이수진 전북도원이 국 민의힘을 탈당하고 6·3 지방선거에서 전주7선거구(효자동)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믿고 탄핵의 강을 건넜고, 이제 무소속의 강도 건너겠다"며 "무투표 당선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심에 책임자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당론보다 민심과 헌법, 법치를 선택했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북의 일당 독점 정치구조를 바꾸고 시민 선택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누가 제대로 밥값을 하는지 시민 앞에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쟁점, 방만한 예산 운영, 수익계약 관행 등 도정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